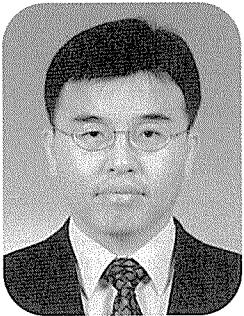


## 성장견인 산업 육성 시급



온기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한**국경제의 성장원동력이 되어 왔던 주력 산업들이 최근 대내외여건 악화로 활기를 잃고 있다. 수출비중 1위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출 2위인 자동차도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요부진으로 최근 들어 수출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도 세계적인 공급과잉 속에서 단가하락과 수입규제 강화로 채산성이 나빠지고 해외판로도 좁아지고 있다.

문제는 간판산업들의 어려움이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 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반도체는 PC산업의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조만간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메모리위주의 취약한 생산구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틈새시장을 파고들기도 어렵다. 자동차도 세계적으로 연간 2000만대 정도의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마당에 소위 '빅6' 만이 살아남을 정도로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성숙단계에 있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은 후발개도국들의 추격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맞고 있다.

이처럼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력이 점차 소퇴해 가는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굴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처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 분야는 소위 지식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이란 생산에 있어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이 전통적인 생산 요소인 노동이나 자본보다 더 중요하게 사용되는 산업을 일컫는다.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으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좌우하는 원천으로서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에 있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산업측면에서는 생산과 고용 수출 투자 등의 측면에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기반 산업에 있어서는 지식정보가 주된 생산요소로서 초기 제품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일단 개발된 제품에 있어서는 생산이 확대될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수확체증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적합하다. 특히 중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산

업들의 성장이 둔화 내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지식과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다른 국가들보다 어느 정도 빨리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은 기존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양화하여 일시적인 대내외 여건변화에 전체 수출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안정된 수출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제조업 뿐 아니라 영상,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서도 새로운 수출유망 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체계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지식기반산업은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되는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가지는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다. 기존 제조업에서는 핵심역량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도 대형화를 위한 합병과정에서 점포축소와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유망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늘어나는 실업자를 흡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에서 지식기반산업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나 90년대 들어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호황을 구가하면서 실업자를 흡수해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진 바 있다. 미국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통해 소위 고성장-저실업의 신경제를 구가한 것이다.

소비구조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식기반산업이 필요하다. 소득과 지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도 점차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않고는 산업과 기업이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 양산기술에 의한 소품종대량생산 체제는 다양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맞게 되었다. 최근들어서는 소비자들의 섬세한 욕구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가 더욱 바람직하게 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정책비전제시와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지식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생물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몇차례 파력한 바 있다. 이 의지가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 등을 촉진하는 정부의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다. 지식의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하다. 암기위주의 학교교육을 개선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뿐 아니라 교육훈련 기관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연구개발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다. 지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구축 등 정보통신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보완도 필요하다.

지식의 활용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며, 기업의 지식경영을 촉진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